



65)



66)

<그림 4>

중국의 언어와 문자를 설명하기 위한 서구적 틀은 역시 문법학이었다.⁶⁷⁾ 마테오리치 시절부터 축적된 중국 경전의 번역서들은 중국 고문의 구문에 대하여 서양의 어법론을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제공해주었다. 즉 라틴 문법-서구의 논리로 중국의 언어구문론을 해석하는 길이 시작된 것이다. 초기의 서구 중국어 연구자들은 점차 중국어 문법, 구문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의 연구 성과는 대개 필사본으로 전수되었다.⁶⁸⁾ 이들 가운데 최초로 출판된 중국어에 문법서로 알려진 것이 바로(Francisco Varo, 1627~1687)⁶⁹⁾의 *Arte de la lengua Mandarina*(중국어문법)이다. 이 책은 이미 1682년에 완성되었으며 필사본으로 전해지다

65) 『葡漢辭典』.

66) 『西儒耳目資』 56쪽과 65쪽.

67) 이하의 논의 내용은 김혜영, 『서양의 중국어 연구』(說文解字注 강독모임자료) 참조.

68) 이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이 알려져 있다. Miguel de Benavides, Juan Cobo (1592), *Lingua sinica ad certam revocata methodum*, Miguel de Benavides, Juan Cobo (1592), *Arte de la lengua China chiochi*, Juan Cobo, *Arte de la lengua China*, Melcior De Mancano (1620), *Arte de la lengua Chichiu*, Martino Martini (1653) *Grammatica Sinica*(漢語語法), Francisco Varo (1682, 1703), *Arte de la lengua Mandarina*.

69) 字는 道津, 萬方濟各이다. 스페인에서 태어나 1643년 도미니크 수사가 된다. 1648년 마닐라, 필리핀에 도착했으며 1649년에 중국에 들어왔다. 1669년도에 중국에서 추방되었다.

가 그의 사후에 1703년 광주(廣州)에서 출판되었다. 바로의 문법서는 언어 이외 문화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어 문법 연구서로서의 전문성이 떨어졌지만, 중국어 문법 설명의 가능성을 증명한 저서가 되었다. 그 이후 다양한 문법서가 출간되기에 이른다.⁷⁰⁾ 18세기에 출판된 문법 연구서 가운데 프레마르(Premare, 馬若瑟, 1666~1736)는 18C 가장 뛰어난 문법가로 평가받는다. 그의 연구는 ‘중국 언어를 외국어 문법에 순응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선교사들이 빨리 중국인들의 생각을 분석하는 연습을 시작하고, 자신의 언어 습관을 버리고 순수하게 중국어로 옷을 입히는 것’을 목표를 지양하며 서구 언어를 기준으로 하는 라틴 문법을 중국어에 억지로 적용시키기 보다는 중국어 고유의 규칙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된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문법 연구의 지면이 확대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제목에서부터 관화나 특정 방언 등으로 연구 범위를 보다 구체화, 세분화하는 특징이 발견된다.⁷¹⁾ 이 가운데 에드킨스(Joseph Edkins, 艾約瑟, 1823~1905)는 문법가는 언어의 규칙을 찾고 이를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방법으로 배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문법가로서 본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했다.⁷²⁾

70) *Notitia Linguae Sinicae*, Joseph Henry Marie de Premare, 1728, 1831출판. *Museum Sinicum*, Theophili Siegfried Bayeri, 1730. *Linguae Sinarum Mandarinicae hieroglyphicae Grammatica duplex*, Etienne Fourmont, 1742. 등이 그 예에 해당된다.

71) *Clavis Sinica*, Joshua marshman, 1814. *A Grammar of the Chinese Language*, Robert Morrison, 1815. *Element de la Grammaire Chinoise*, Remusat, Jean Pierre Abel, 1822. *Arte China constata de alphabeto e grammatica, comprehendo modelos das diferentes composicoes*, Joaquim Affonso Gonçalves, 1829. *Notices on Chinese grammar*, Gutzlaff, 1842. *A Grammar of Colloquial Chinese as exhibited in the Shanghai Dialect*, Joseph Edkins, 1852. *A grammar of the chinese colloquial language*, Joseph Edkins, 1857. *Mandarin Grammar*(文學書官話), T.P. Crawford, 張儒珍, 1869. *Chinesische Grammatik of Georg von der Gabelentz*, Georg von der Gabelentz, 1881. 등의 예가 있다.

72) 그의 중국어 관련 연구로는 *A Grammar of Colloquial Chinese as exhibited in the Shanghai Dialect*(1852), *A grammar of the chinese colloquial language*(1857), *A Vocabulary of Shanghai Dialect*(1869), *China's Place in Philology*(1871),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chinese*

마테오리치로부터 시작된 라틴어 발음표기는 중국과 서양의 음운학, 사전학, 어휘학 등을 포함한 역사언어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그가 착수한 중국 고전 번역 사업은 서양학자들의 중국 문법학 연구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중국이 근대 이후에 스스로의 어법학을 정립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본다면 『서국기법』을 통해 시도된 것은 선교의 목적에서도 중국문자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서도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 나오는 말

주요한 문명 사이의 교류와 상호 이해의 역사를 살펴보는 일의 일환으로, 우리는 마테오리치의 『서국기법』을 둘러싼 중국의 언어와 문자에 대한 서구인의 시각을 관찰하였다. 다른 문명에 대한 자신만의 고유한 이해가 각각의 문명에서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계몽주의의 그들은 여전히 강력하다. 계몽주의가 신봉하는 ‘이성’과 ‘합리성’ 안에는 근대 이전의 중국에 대한 평가가 직조되어 있고, 그것을 소위 ‘우리 동아시아’에서 전근대 초극의 사명으로 자임하는 현대사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더더욱 마테오리치 자신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알았는가 보다는, 마테오리치 이후 그의 영향사가 우리에게 중요했다.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 우리는 초기 예수회의 저작들에서 무엇을 읽어내어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가.

1552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마테오리치는 예수회 선교사로 1582년 마카오에 도착했고 1583년부터 중국에 머물면서 중국어 학습에 전념했

Characters(1876), *Progressive Lesson in the Chinese Spoken language*(1887), *Evolution of the Chinese Language* 등이 있다.

다. 1601년 명나라의 수도인 북경에 영주할 허가를 얻은 최초의 서양인이 되었고, 그곳에서 ‘서양에서 온 리서태(利西泰) 선생’이라는 존경을 받다가 1610년에 사망했다. 아직 상호 영향 관계를 말하기 힘든 시절, 마테오리치는 성실하게 중국을 이해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했다.⁷³⁾ 마테오리치는 결코 기독교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그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한문 저술이 『교우론』이었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 주듯, 리치는 종교를 먼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친구를 먼저 사귀려고 하였다.⁷⁴⁾

그래서 중국 지식인의 눈에 비친 마테오리치, 리마두는 매우 훌륭한

73) 마테오리치의 이러한 적응정책에 대해서는 예수회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어났다. 그의 후계자인 퉁고바르드는 상제는 과연 기독교적인 신인가 의심하고 단장취의적인 중국고전인용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았다. 퉁고바르드는 중국인이 상제를 유일한 창조주이자 전지전능한 인격신으로 여기지 않고, 중국 고전의 해석에 따라 질서와 생기를 주는 무명의 힘 정도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리치가 놓였던 입장이 아무리 복잡하다 해도 중국의 선교사들이 탈선하고 있다는 느낌을 우선 받았다. 그래서 퉁고바르드는 ‘봉교사인’으로 불리던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했는데, 대단히 곤란한 결과가 발생했다. 봉교사인들이 서양인 선교사가 쓴 한문 저술을 읽을 때 상제를 비롯한 기독교 용어를 유교적인 뜻으로 읽고 있었다. 유교적인 해석을 읽으면서 성스러운 기독교 신앙에 합치하는 설명을 찾았다고 멋대로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 봉교사인 가운데 한 사람이 양정균인데, 그는 천주를 흠모하고 받는 것은 곧 우리 유교에서 상제에게 하는 것과 같다는 해석이 옳바르다고 믿고 있었다. 퉁고바르드는 중국에서 사용되는 지배적인 관념을 조사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고 1623년 라틴어로 된 *De Confucio ejusque doctrina tractatus*를 지었다. 그는 리치처럼 중국 고전에 나오는 권위 있는 언설을 인용하여 기독교의 입장에서 해석한다 해도, 중국인들이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읽지 못하고 전통적인 해석을 하는 이상, 리치다운 단장취의적인 중국 고전 인용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리치의 적응 정책에 대한 퉁고바르드의 비판은 다른 선교단의 비판의 계기로 작동하고, 이어서 일련의 전례논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퉁고바르드가 라틴어로 쓴 책은 1701년 예수회 선교사를 적대시하는 외국 선교회에 의해 「중국인의 종교에 얽힌 여러 문제에 관한 논의」라는 제목으로 파리에서 인쇄되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회를 공격하는 첩병으로 사용된다(스케히로, 811-812쪽).

74) 스케히로, 806쪽.

인격을 갖춘 인물이었다. 마테오리치와 교유를 맺은 중국 유학자 가운데 이탁오(李卓吾, 李贄 1527~1602)와 같은 명사도 있었는데, 이탁오는 『속분서』(續焚書)(권1)에서 리치의 인간됨과 인품을 한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알리고 있다. “리서태에 관해 말씀드리죠. 서태는 서양인으로 먼 거리를 거쳐 중국에 왔습니다. 약 20년간 조경(肇慶)에서 살고 있습니다. 중국 책 중에서 그가 읽지 않은 책은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는 참으로 훌륭한 인물입니다. 내면은 참으로 영롱하며 외면은 실로 검소합니다. 수십 명이 모인 시끄러운 회합에서, 반론이 사방에서 날아와도 그 토론에 참가하고 있던 그가 흐트러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껏 이런 인물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지나치게 자만하거나 총명함을 자랑하거나 또는 너무 흥미하여 그것이 단점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점이 없다는 점에서 누구도 그를 따를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가 여기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 그를 만났지만 결국 알 수 없었습니다. 만일 그가 주공(周公)과 공자(孔子)의 가르침을 대신해서 자신의 가르침을 펴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요.”⁷⁵⁾

마테오리치에게 우호적인 이탁오조차 주공과 공자의 가르침을 대신해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펴는 일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만큼, 중국 안의 기독교 선교는 힘들고 복잡한 일이었다. 그러나 접촉의 초기에 우호적인 만남과 이해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그의 태도는 일방적인 선교나 세뇌로 간주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는 그가 남긴 텍스트를 통해 그 자신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호 이해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풀어가야 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서국기법』을 통해서 마테오리치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동

75) 스케히로, 803쪽.

서 문명의 연결 고리는 없는가. 서양 기억술의 장소 설정과 배치, 이미지를 불러내어 결합시키는 방식 등은, 중국문자와 같이 상형성을 유지해온 문자의 분류와 배치 그리고 연상적 기억법과 어떤 본원적인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참고문헌

『左傳·宣公』.

『說文解字』.

『尚書·虞書·大禹謨』.

『論語·子張』.

『西儒耳目資』.

『程氏墨苑』(十二卷), 明代 程大約.

朱維錚 主編(2001), 『西國記法』, 『利瑪竇中文著譯集』, 香港: 香港城市大學出版社.

黨懷興(2003), 『宋元明六書學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章炳麟 著, 上海人民出版社 編(1999), 『文始』, 『章太炎全集』 7권, 上海人民出版社.

徐通鏘(1997), 『語言論』, 東北師範大學出版社.

楊福綿(2001), 『羅明堅和利瑪竇的葡漢辭典 (歷史言語學導論)』.

廉丁三(2009), 『象形성에 의한 중국 문자 의미 분류에 관하여: 『說文解字』의 예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59집.

于省吾(1979), 『甲骨文字詁林』, 中華書局.

吳吉龍(2002), 『漢語拼音의 歷史的 배경과 現代化』, 中國人文科學.

裴相圭(2008), 『北宋代 文字學의 思想史의 意味-王安石 『字說』을 중심으로』, 『서울대 東洋史學科論集』 제32집

데이비드 문젤로 지음, 김성규 옮김(2009), 『동양과 서양의 위대한 만남 1500-1800』, 휴머니스트.

하영삼 지음(2011), 『한자와 에크리튀르』, 대우학술총서605, 아카넷.

티머시 부룩 지음, 박인균 옮김(2008), 『베르메르의 모자, 베르메르의 그림을 통해 본 17세기 동서문명교류사』, 추수밭.

문정진 외 지음(2008), 『중국 근대의 풍경, 화보와 사진으로 읽는 중국 근대의 기원』, 그린비.

이사벨라 버드 비숍, 김태성·박종숙 옮김(2005), 『양자강을 가로질러 중국을

보다』, 효형출판.

히라카와 스케히로(平川祐弘) 지음. 노영희 옮김(2002), 『마테오리치, 동서문명 교류의 인문학 서사시』, 동아시아.

마테오리치 지음, 송영배 외 옮김(1999), 『천주실의』, 서울대학교출판부.

프란체스코 삼비아시 지음, 김철범 · 신창석 옮김(2007), 『영언여작, 동양에 소개된 스킨라철학의 영혼론』, 일조각.

『헤렌니우스에게 바치는 수사학』 *Rhetorica ad Herennium*.

Instituto Português do Oriente (IPOR) 東方葡萄牙學會(2001), *Dicionário Português-Chinês. Pu-Han cidian* 葡漢辭典. *Portuguese-Chinese Dictionary*, Ricci Institute for Chinese-Western Cultural History 利瑪竇中西文化歷史研究所.

Joseph Henry Marie de Premare(1728), *Notitia Linguae Sinicae*.

Theophili Siegfried Bayeri(1730), *Museum Sinicum*.

Joshua marshman(1814), *Clavis Sinica*.

Robert Morrison(1815), *A Grammar of the Chinese Language*.

Remusat, Jean Pierre Abel(1822), *Element de la Grammaire Chinoise*.

Joaquim Affonso Gonçalves(1829), *Arte China constate de alphabeto e grammatica, comprehendendo modelos das diferentes composicoes*.

Gutzlaff(1842), *Notices on Chinese grammar*.

Joseph Edkins(1852), *A Grammar of Colloquial Chinese as exhibited in the Shanghai Dialect*.

_____ (1857), *A grammar of the chinese colloquial language*.

T. P. Crawford, 張儒珍(1869), *Mandarin Grammar*(文學書官話).

Georg von der Gabelentz(1881), *Chinesische Grammatik of Georg von der Gabelentz*.

John Wilkins(1668), *An Essay Towards a Real Character and a Philosophical Language*.

원고 접수일: 2012년 4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2년 5월 23일

계재 확정일: 2012년 5월 24일

ABSTRACT

Western Understanding of the Chinese Characters
 - In the case of Matteo Ricci(1552~1610)'s *Xiguojifa*(西國記法) -

Yum, Jung Sam

Matteo Ricci(1552~1610: 利馬竇(Limadou)) was a pioneer in formulating the Jesuit missionary approach to China in the 16th century. His attitude toward Chinese culture was relatively balanced between praise and criticism. Ricci began his discussion of Chinese culture by stating that educated Chinese stressed the written language far more than the spoken language. He noted that even friends living close together in the same city would communicate by writing rather than by meeting and talking. Ricci stated that the Jesuits had concentrated on learning *guan-hua*(官話) (literally, official's language) of which the term *mandarin*, which means both the officials and official language, is a fairly close equivalent.

Xiguojifa(西國記法) was written by Ricci, who had much interest in learning Chinese written language, and was published by Zhudinghan(朱鼎澣) after Ricci's death. This book demonstrates not only a Western scholar's effort to understand the Chinese characters, but the way how to memorize the words and things. So the book was titled as an Art of Memory(記法) in Western Countries(西國), *Xiguojifa*. When Ricci showed

his ability of memorizing the Chinese characters forwards and backwards in front of the Chinese scholars, he was asked to teach Luwangai(陸萬駭)'s son the art of memory to make him pass the exam for government official. Ricci wanted to show off his memory and Western traditional art of memory, so he decided to write this book. *Xiguojifa* consists of six chapters, Yuanbenpian(原本篇), Mingyongpian(明用篇), Sheweipian(設位篇), Lixiangpian(立象篇), Dingshipian(定識篇), Guangzipian(廣資篇). His ultimate goal is to demonstrate the efficient way to memorize things and words, which have been transmitted in Western tradition.

An immense weight of history in Western tradition presses on the memory section of *Ad Herennium*. The *Ad Herennium* was a well known and much used text in the Middle Ages when it had a special prestige because it was thought to be written by Cicero. Art of memory in the Western tradition must refer back constantly to this text as the main source of the tradition. Every *Ars memorativa* treatise, with its rules for 'places', its rules for 'images', its discussion of 'memory for things' and 'memory for words', is repeating the plan, the subject matter, and as often as not, the actual words of *Ad Herennium*. And the astonishing developments of the art of memory in the sixteenth century still preserve the '*Ad Herennium*' outlines below all their complex accretions. The artificial memory is established from places and images [*Constat igitur artificiosa memoria ex locis et imaginibus*].

In *Xiguojifa*, Ricci also introduced the art of memory based on '*Ad Herennium*' outlines. Through the images of words, he tried to explain that Chinese characters can be memorized. He thought if we make use of the icons of characters, we can understand easily how to know the

meaning of characters. A sign of signification in Ricci was his remark about the written Chinese as the images of the words. He stated: “This method of writing by drawing symbols instead of forming letters gives rise to a distinct mode of expression by which one is able, not only with a few phrases but with a few words, to set forth ideas with great clearness, which in our writing would have to be expressed in roundabout circumlocutions and perhaps with far less clarity”. From the above description, we can judge that Ricci had an understanding of Chinese language which had on the whole a deep and solid basis.

When European culture encountered that of China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Jesuits were willing to accept the Chinese culture and tradition. This book can help us to comprehend Jesuit accommodative ideas of Chinese characters at a very early stage of their activity in China.